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과 이뤄내

5대 목표 · 16개 정책, 60개 세부과제 · 3가지 지역특화사업 추진

광양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8월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서면심사와 향후 사업계획 발표 등 평가를 거쳐 15일 최종 결과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조성기반 여건과 지자단체장의 의지,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매년 지정해 오고 있다.

그동안 시는 지난 5월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장기계획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시민참여단과 공무원 실무추진단 구성 및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 왔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광양시는 향후 5년간 '성 평등으로 만드는 미래 성장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정하고 있다.

고 712억 원을 투자해 5대 목표와 16개 정책, 60개 세부과제와 3가지 지역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여성 S.A.F.E Zone 조성 프로젝트(Safe 안전, Art 예술, Found 친업, Emotion 감수성)를 시행한다.

둘째, 고용복지+센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를 비롯한 7개 기관을 한 건물에 입주시켜 여성일자리 메카 기능을 담당케 함으로써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맞춤형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어린이 보육재단이 중심이 되어 여성의 출산·보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전국 최고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이아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 성평

등 분야를 비롯해 여성장업방 운영, 공동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안심 귀가의 집, 생활공간 가족친화적 정비, 맘이 편한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내년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행실적을 점검·평가 받게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이루어낸 결과물이며, 여성이 지역사회에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며, "이번 신규 지정을 토대로 여성의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아름다운 동행을 민·관이 협력해 여성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천사관, '호남사진 아카데미' 작품 전시

회순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

2017 호남사진 아카데미 사전전이 16일부터 28일까지 화순군립 천불전당 사진문화관(이하 천사관)에서 열린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호남사진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수업과 개인 출시를 통해 작업해 였던 '회순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담은 사진들 중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천사관 로비에 마련됐다.

'호남사진 아카데미'는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선용과 문화가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20일 사진입문과 사진심화반 등 3개 강좌로 수업을 시작해 12주 동안 강의가 진행됐다.

천사관 관람은 무료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적극 나서



체육시설과 먹거리, 전국대회 우승 경력의 종목별 우수팀 소재, 쾌적한 숙박시설 등을 소개하면서 훈련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시는 경기장시설 정비와 숙박·음식점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업주들에게 친절한 손님 맞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유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컨디션 유지를 위해 축구, 육상, 탁구, 씨름, 태권도 등 5개 종목의 스포츠 리그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경기장 무료개방과 특선품, 간식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전지훈련팀의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발송한 유치 홍보 서한에는 우리시의 장점인 따뜻한 기후, 풍부한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마을공동체가 행복한 '따순 마을' 만들기 성료

마을공동체 사업 결과 공유회 갖고 성과 공유 · 네트워크 강화



는 매주 1회 이상 아이디어회의를 개최하며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 운영 프로그램 구성, 사업 연계방안 등을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물어 결정했다.

'아이디어학교'는 마을사업의 실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돋는 강의, 실습, 토론 등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진행됐다. 그 결과 95명이 신청하여 44명이 수료하였고, 공모사업에 23팀이 선정됐다.

'아이디어톡'은 마을공동체 시작 단계 도입이나 성장단계 모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진행하였으며 27팀 157명이 신청하였고 15팀 98명이 참여해 공모사업에 6팀을 선정했다.

주민참여 공모사업이 점차 다양한 형태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명칭을 '따순(따뜻한 순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라고 불렀다.

따순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중심이 된 심의절차(현장·면접)를 진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이 된 회계교육을 이수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실행했다.

순천=김충영 기자

화순군, 새해부터 굿모닝 민원실 운영

오전 8시 30분부터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화순군은 직장인 등이 근무시간 내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아침시간에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굿모닝 민원실'을 2018년 1월부터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 인감, 건축물대장, 지적(임야)도 등이며, 여권 접수 및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화순군에 따르면 굿모닝 민원실

군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추후 차량 등록 및 취·등록세 업무도 포함 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아침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예약민원서류 이간 전달서비스, 민원상담, 무인민원발급기 서류발급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매주 화요일에는 여권 접수 및 교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순천시가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17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안전문화대상은 지난 7월부터 안전교육, 안전신고 활성화, 안전의식 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서면심사, 국민투표,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순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민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한 점과 안전 인프라 조성에 큰 성과를 인정받아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순천시는 우선 '시민안전리더'

육성했다. 기관별·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교육을 체계화하기 위

해 4개 분야(교통·신便·생활·소방) 자격증 소지자 등 민간전문가 공모 후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했다. 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시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진 등 모든 재난에 대비해 순천형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세계적인 밥상 12월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나라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